

대구주보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2015.5.17.(나해) 제1944호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http://www.daegu.jubo.or.kr



폴 람토우스키, 『구세주 그리스도』(1931).
콘크리트, 리우 데 자네이루, 브라질.

† 오늘의 전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20 참조)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머리 이신 주님께서도 지체인 우리를 이끌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28)

제1독서 사도 1,1-11 **제2독서** 에페 1,17-23 **복 음** 마르 16,15-20

입 당 송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화 답 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방송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김종헌 발다살 신부 | 대구평화방송 사장

현대사회는 분명히 마스크, 홍보의 시대입니다. TV, 신문, 라디오 방송은 거의 하루 종일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뉴스와 정보를 대량으로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홍보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해마다 주님의 승천 대축일을 '홍보 주일'로 정하여 마스크를 통한 복음 선포활동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자들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방송매체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회 매체 교령』 18항 참조).

불행히도 오늘날 엄청난 힘을 가진 매스미디어는 자본주의의 상업적 논리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내용물들을 생산하기에 급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겨냥하여 오직 즐길 거리, 오락과 선정적인 내용물들도 대량으로 내보냅니다. 우리 신자들 역시 이런 비복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마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이 송출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급속히 몰들어 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1996년부터 대구평화방송을 설립하여 대구지역, 김천지역, 안동지역, 포항 지역에 방송을 보내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비신자들과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직접선교, 가두선교, 인쇄매체를 통한 선교도 필요하지만, 마스크, 특별히 방송을 통한 선교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최저의 노력과 투자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교구는 대구평화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은 주님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런 방송을 후원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평화방송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느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민들과 또 신자들을 위한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가의 디지털 장비 교체와 인력 부족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은 단순히 의욕과 사명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 방송을 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못 다한 선교를 저희가 대신하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신자 여러분, 대구평화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방송 선교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헌**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의 제49차 홍보 주일 담화문(요약)

사랑의 은사 안에서 탁월한 만남의 자리인 가정의 소통

가정은 교회의 깊은 성찰의 중심 주제이며,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 회의, 얼마 전에 개최된 임시 총회와 오는 10월에 있을 정기 총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홍보 주일 담화의 주제를 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가정은 무엇보다 우리가 소통을 배우는 첫 자리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장면의 복음 구절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루카 1,39-56 참조). 마리아의 인사말에 가장 먼저 응답한 것은 엘리사벳의 태 안에서 기뻐 뛰노는 아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배우는 것으로, 어머니의 태는 경청과 신체적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의 첫 '학교'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뒤에도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태' 안에 있습니다. 그 태는 바로 가정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는 여러 사람들로 이루어진 태인 가정은 "우리가 서로의 차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복음의 기쁨』, 66항 참조).

가정은 소통의 가장 기본적 형태인 기도를 전수하는 자리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에게 힘이 되며 동행하는 능력,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며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함께 웃고 우는 능력을 키웁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소통의 의미를 곁에 있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더욱 다가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다른 이들의 한계를 경험하고, 또한 함께 평화로이 살아가는 데에 뒤따르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함과 나약함, 심지어 갈등마

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에 건설적으로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은 우리의 한계와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 용서의 학교가 됩니다. 용서는 그 자체가 역동적인 소통의 과정입니다.

오늘날 특히 젊은이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매체들은 소통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체적 접촉을 피하고 모든 침묵과 휴식 시간을 채우는 수단으로 매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은 커뮤니케이션의 필수 요소이며, 침묵이 없으면 말에 알찬 내용을 담을 수 없다."(베네딕토 16세, 2012년 홍보 주일 담화 참조)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연을 나누고 멀리 있는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다른 이들에게 감사하거나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늘 새로운 만남의 문을 연다면 매체는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커다란 도전은 대화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은 곁에 있음을 체험하면서 소통을 배우는 환경이며 소통하는 주체, '소통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훌륭한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아름다움과 부요를 증언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할 줄 압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신뢰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2015년 1월 23일
프란치스코

이달의 성인

로마의 사도 성 필립보 네리

(신부, 설립자, 1515-1595년)



를 따라라”(마르 10, 21).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 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

게 다가가 하느님과 하늘나라를 전하고 가르치 셧습니다.

36세의 늦은 나이에 사제가 되신 필립보 네 리 성인께서는 특히 고해 성사 직무에 충실하 셧는데 신자들이 성당을 찾았을 때에 언제든 지 고해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인의 뛰어난 영성과 고해성사에 대한 열정은 유럽 전역에 알려졌고 로마인들은 성인을 <로 마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수많은 성인성녀들이 그러하겠지만 필립보 네리 성인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자신 앞에 놓인 부와 명예를 버리고 가난과 봉사 의 삶을 선택한 성인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나신 성인께서는 10대 때 부잣집 친척의 양자로 입양되어 사업 가의 꿈을 키웠으나 베네딕토 수도자들의 가난 한 삶을 통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것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평생 보장된 모 든 재물과 권리와 미래를 포기하고 로마로 건 너갔습니다.

기도와 묵상, 공부에 전념하시던 성인께서는 학문적 성취보다는 당장의 선행이 우선이라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지에 오른 공부마저도 그만두시고 책들을 모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인께서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애덕 을 실천하셨으며 특히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

또한 성인께서는 동료사제들과 함께 영적 성 장을 위해 <오라토리오회>라는 작은 기도 모 임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독창, 합창, 관현악을 위한 대규모 악곡으로 알고 있는 ‘오라토리오’ (Oretorio)가 바로 여기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오라토리오’라는 용어는 본래 수도원 혹은 신 학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경당 을 의미했는데 오라토리오 모임에서 성경을 감 동적으로 느끼기 위해 신비극을 공연하고 노래 를 불렀기 때문에 이후 오라토리오가 음악용어 로 정착되었고 하이든, 비발디, 모차르트에 의 해 크게 발전했습니다.

성인께서는 모든 고통을 성체와 성모님께 의 탁하며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예언하신 대로 1595년 5월 26일에 선종하셨고 1622년 그레 고리오 15세 교황님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습 니다. **필립보**



구불약(九不藥)

옛날 당나라에 송정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송정은 많은 환자를 치료해 큰 명성과 부를 얻었습니다. 하루는 가난한 의원이 송정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환자가 찾아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굳이 나에게 비결이 있다면 구불약 덕분이지요. 아홉 개의 불(不)을 치유해 주는 신비로운 약이지요.

첫째는 상대방이 나를 의심하지 않게 해 주고(불신), 둘째 불안한 마음을 없애 주고(불안), 셋째 나에게 앙심을 품지 않게 해 주고(불양), 넷째 내 마음이 곧다는 것을 알려 주고(불구), 다섯째 내가 약값을 속이지 않음을 믿게 해 주고(불치), 여섯째 나와 상대방의 거리감을

없애 주고(불의), 일곱째 내가 성의 없다고 느끼지 않게 해 주고(불충), 여덟째 내가 공손하지 않다는 불쾌감을 없애 주며(불경),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내 언행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 주지요(불규).”

설명이 끝나자 가난한 의원은 송정 앞에 바짝 다가갔으며

“과연! 명약이군요. 그토록 신통방통한 약이라면 엄청 비싸겠군요”

“이것은 약재로 지을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의원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송정은 한 바탕 깔깔 웃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만인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구불약! 그것은 바로 <웃음> 이랍니다.” **▶▶▶**

금주의 성인

5월 17일	성녀 바실라(순교자, 알렉산드리아), 성 실라오(주교, 루카, 1100년) 성 파스칼 바일론(수사, 증거자, 1540~1592년)
5월 18일	성 베난시오(소년, 순교자, 카메리노, 257년), 성 에리코(왕, 순교자, 스웨덴, 1160년) 성녀 엘리바(과부, 수녀, 샤프츠베리, 971년), 성 요한 1세(교황, 순교자, 526년) 성녀 율리타(동정순교자, 안키라, 304년), 성 펠릭스(수사, 칸탈리체, 1515~1587년)
5월 19일	성 둔스타노(대주교, 수도승, 캔터베리, 910~988년), 복자 알퀴노(수도원장, 요크, 735~804년) 성녀 푸텐시아나(동정순교자, 로마, 2세기), 성녀 치리아카(동정순교자, 니코메디아, 307년) 성 이보 헬로리(신부, 증거자, 법률가, 케르마르틴, 1253~1303년) 성 첼레스티노 5세(교황, 1210~1296년경)
5월 20일	복녀 골롬바(동정녀, 3회원, 리에티, 1467~1501년), 성녀 바실라(동정순교자, 로마, 304년경) 성 바우델리오(순교자, 님, 2~3세기), 성 베르나르디노(신학자, 설교가, 시에나, 1380~1444년)
5월 21일	성 고드릭(은수자, 핀칼레, 1065~1170년), 성녀 이스베르가(수녀, 에르, 800년경) 성 크리스피노(수사, 비테르보, 1688~1750년), 성 테오발도(대주교, 비엔, 1001년)
5월 22일	성 로마노(수도원장, 수비아코, 1380~1457년), 성녀 리타(과부, 수녀, 카시아, 1380~1457년) 성 에밀리오(순교자, 아프리카, 250년), 성녀 율리아(동정순교자, 코르시카, 5세기경) 성녀 후밀리타(과부, 수녀, 파엔차, 1226~1310년), 성 카스토(순교자, 아프리카, 250년) 성녀 퀴테리아(동정순교자, 5세기경)
5월 23일	성 데시데리오(주교, 순교자, 비엔, 608년경), 성녀 에우프로시나(은수자, 폴로츠크, 1173년) 성 요한데 로시(신부, 1698~1764년), 성 이보(주교, 샤프트르, 1040~1115년) 성 레오니트(주교, 순교자, 로스토프, 1077년경)

■ 세나투스 성모의 밤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5일(화) 오후 8시 성모당에서 레지오마리아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담당: 하성호 사도요한 총대리 신부) 성모의 밤 미사를 봉헌 하셨습니다.

■ 안심원 팔순 구순 백수 잔치



대주교님께서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5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안심원에서 열린 팔순, 구순, 백수 축하잔치에 참석하시어 어르신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시고 선물을 전달하셨습니다.

사진제공 : 월간 <빛>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20주간, 2015. 5. 17.~23.>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2마카 8-9장	10-11장	12-13장	14-15장	욘 1-5장	6-10장	11-14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욘기』

핵심 주제는 살아가는 데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의인의 고통과 하느님의 침묵이다.

- ① 고통이 결코 하느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② 하느님께 대한 물음
 - 정의로운 분이신가? ⇒ 욘의 의로움과 고통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을 인정하심.
 - 악을 처단할 능력이 있으신가? ⇒ 자애와 공정으로 다스리시는 만물 위에 유일한 주님.
 - 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 인간 특히 가난한 이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인격신(人格神)이시다.
- ③ 이유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고통도 많지만 욘의 경우 고통의 목적은 믿음의 강화이다.
- ④ 하느님의 존재와 섭리는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신비임을 분명히 말한다.
- ⑤ 세상 온갖 고통과 부조리에도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공경 받으셔야 할 분이시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성모 성월이니 만큼



⑥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5월 18일(월) 10:30 범어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18일(월) 11:00 죽도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5월 18일(월) 11:00 계산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5월 18일(월) 11:00 한티순례자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5월 18일(월) 11:00 수성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5월 21일(목) 10:00 평화성당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5.23(토) 14:00, 예수회 관구본부
주제: 순명 - 그분 뜻에 따름
문의: 예수회, (010)6245-1608
<http://cafe.daum.net/vocsj>

예수성심에로의 초대

기간: 6.7(매월 첫주일) 14:00~17:00
대상: 성소에 관심있는 여성(20~35세)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신청: (010)2649-2045

산내 치유 피정 / 성서통독(선착순 10명)

기간: 5.19(화)~20(수), 효령 하늘집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 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현시, 미사, 안수)

일시: 5.20(수) 13:00~16:30
6.17(수) 13:00~16:3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마음의 길' 2박3일 피정

기간: 5.23(토) 14:00~25(일) 13:00

장소: 부산 본원 / 주제: 예수그리스도
마음의 태도 (에니어그램 활용)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9330-3104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기간: 6.12(금)~14(일), 2박 3일
장소: 베네딕도영성관(사수동)
주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삶
대상: 하느님 사랑을 느끼고 싶은 신자
문의: 한국CLC, (02)333-9898

이해인수녀님과 함께하는 '바다의 선물 피정'

기간: 7.17(금)~19(일)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
참가비: 25만 원(항공료 제외), 선착순 마감
문의: (064)796-4181

교육 | 모집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3차)

일시: 5.28(목)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테레사]관 3층 테레사홀
주제: 비수술적 재활치료
강사: 재활의학과 박기영 교수

베네딕도 청년성가단 4기 모집

일시: 매주 월 19:30, 베네인
대상: 교회음악합창에 관심있는 청년들
문의: 포교베네딕도수녀원,
(010)5918-3014

국비지원 무시험 국가자격 장례지도사 교육생 모집

대상: 선종봉사자, 본당봉사자, 일반 교우분
주간반: 월~금, 주말반: 금,토,일(개강6.28)
특전: 교육비 국비지원(식비, 차비추가지원)
문의: 대가대장례지도사교육원, 555-4404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초·중고 캠프: 1차 7.18 / 2차 7.25(4주/40명)
대학생연수: 1차 6.28 / 2차 8.29(8주)
부모동반연수: 7.18(토) 출발(4주)
특징: 영어연수, 체험활동, 해외봉사
문의: 656-6655(ARS 4)

젊은이 선교 체험(필리핀)

기간: 7.20(월)~30(목) 10박 11일
대상: 고1~대학생, 청년 남녀
경비: 150만 원(유류할증료 및 세금포함)
신청: 성골롬반외방선교회, (02)924-3048

2015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판매가: 3천 원 / 110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건물청소(입주, I·T청소(소독), 연간관리 등)
시설경비, 방역소독, 저수조청소(소독)
소방시설종합관리,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이동 방과후 학교운영)
후원전화 070-8911-6033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털리아)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 대구은행
본점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테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동 새마을금고 옆
신매역 3번 출구 (천주성삼병원 방향)
김경일(아베스)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 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대형주차장 정비 / 여성전문입원실

체코하여요
오른 편은 내안

노성군
평화동 아유쿠스티노스
신격동 대우아파트 앞
1959-7175

대구그리다스튜디오
설레임으로 다가와
추억을 그리다!

가족촬영 | 우정촬영 | 리마인드촬영 | 웨딩전문촬영
드레스대여 | 턱시도대여 | 헤어샵 · 헤어디자이너

김대현(프란치스코)
☎ 053)424-7777 | 010-2112-8236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반여기(배오로) 011-514-3855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결혼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미팅취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서류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상인점 홀플러스 맞은편 / 범어동 경교1 입구

행사 | 모임

2015 대구 성령 대회

일시: 5.23(토) 9:40~18:0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남산동 대신학원)
 강사: 신상현 수사, 김명심 수녀 외
 (예수의 꽃동네 수도회)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복자성당 사랑 나눔 큰 잔치

기간: 5.30(토) 11:00~31(일) 17:00
 내용: 본당설립 45주년 기념,
 50주년(2020년)준비 및 지역 복음화와
 이웃과 함께하는 바자회
 품목: 생필품, 특산품, 먹거리, 주류 등

성김대건성당 이웃사랑 바자회

일시: 5.31(일) 9:00~19:00
 취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참여공동체를 구현하고,
 그 이웃을 위한 기금마련
 품목: 육류, 생필품, 먹거리, 식서류, 주류 등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5.18(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교육 | 모임

2015년 상반기 말씀잔치 개최

일시: 6.13(토) 9:00, 교육원 다동 대강당

주제: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신청: 5.24(일)까지 / 계좌: 대구은행
 508-11-836412-0 (한상숙) / 1만 원
 주최: 교구 성서사도직담당, 250-3082

관덕정 주관 6월 성지순례

일자: 6.21(일), 대전교구 갈매못성지
 신청: 5.20(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 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대구대교구 청소년국

일본 나가사키 청소년 순례단 모집
 기간: 7.17(금)~20(일)
 대상: 중고등학생(선착순 30명)
 참가비: 70만 원 / 마감: 6.1(일)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4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2015 칠곡, 평화의 누릿길

일자: 9.5,19(토)/ 10.17,31(토)/ 11.14(토)
 출발: 9:00, 계산성당 / 2만 원(중식포함)
 장소: 왜관수도원, 가실성당, 구상문화관 등
 참조: www.dgpgbc.co.kr(단체신청가능)
 주최: 칠곡군-대구PBC, 문의: 251-2610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과정

기간: 5.26(화)~28(목) 9:00~16:30
 장소: 가톨릭대학교병원 3층 데레사홀
 신청: 5.19(화)까지, 3만 원(중식, 교재)

505-10-129903-9(대구) 완화의료팀
 문의: 650-4557, 4438

제15회 PBC창작생활성가제 공모

접수마감: 8.3(일)~14(금)까지
 제출: 참가신청서, 악보9부, 참가곡 CD, 사진장
 본선: 10.24(토) 18:00 서강대학교 메리홀
 주최: 평화방송-평화신문 www.pbc.co.kr
 문의: (02)2270-2323, 2328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한국무용, 가야금, 플룻, 우쿨렐레,
 오카리나, 통기타, 바이올린, POP,
 초크아트소품, 톨페인팅, 바리스타
 문의: 476-6211(지하철1호선교대역)

채용 | 안내

요양원 입주자, 직원 채용

입주: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 받은 어르신
 직원: 요양보호사
 문의: 파티마홈(베네딕도수녀회 운영)
 324-1188 / (010)8595-1186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http://cord.fatima.or.kr>
 문의: 959-8883 / 940-7126

교구 법원 공시(253-9550)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향숙(모니카), 송정오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믹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미소나라 출장부페
 예약부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부페
 대표 양애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유펜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라.kr>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원장 정순우(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삼담카페 공감 OPEN!
 삼담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곳
 학교(성)폭력상담, 아동청소년심리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노인상담, 학습·진로코칭
 뇌훈련 프로그램(뉴로피드백훈련), 배우처제공기관
 대표 이 호 숙(율리아나) jikimgd.net
 T. 745-1388, 755-2235
 황금1동 신천지하이츠 상가 2층
로아스교육연구소
학교폭력에 방증합치원센터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소화기·내시경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HS **익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